

벼 농작물 재해보험료 시·군간 최대 8배 차

벼 무사고 환급제 폐지...과수 4종 보상기준 80%→50% 하향
진도 보험료율 11.7%·장성 1.48%...특정 읍·면 높은 손해율

김승남 국회의원 국감서 지적

전남지역에서 같은 벼를 키우는 데도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료가 시·군별로 크게는 8배 차이가 나 개선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23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 기관 종합감사에서 “정부 정책 보험인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보상기준이 매년 축소되고 있다”며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험을 통해 보상함으로써 농가의 소득·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기준이 매년 낮아지면서 재해 피해를 본 농가경영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올해는 사과·배·단감·뽕은감 등 과수 4종에 대한 적과 전 발생 재해 보상기준을 기존 80%에서 50%로 하향했다.

2016년 벼 품목에 한정해 시범 도입했던 무사고 환급제도 2017년에 폐지됐다.

김 의원은 특히 특정 읍면의 높은 손해율이 해당 시군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지역 간 보험료 격차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시군별 보험료율의 격차는 보험지급금 차이의 원인도 된다.

전남지역 벼 보험료율의 경우 진도군의 경우 11.7%인데 장성군은 1.48%로 그 격차가 무려 8배까지 차이가 났다.

정부는 보험손해율이 평균 160%로 급증

■전남 22개 시·군 벼 보험료율

※자부담 10% 기준·단위:%

진도군	11.7	함평군	6.14
고흥군	9.23	강진군	5.88
신안군	9.19	여수시	4.66
나주시	9.04	영광군	4.19
목포시	8.28	장흥군	3.75
영암군	7.14	광양시	3.36
보성군	7.1	구례군	2.51
순천시	6.33	곡성군	1.94
무안군	6.28	담양군	1.73
해남군	6.24	화순군	1.57
완도군	6.17	장성군	1.48

※이양직파불농부보장 특약 미가입
(자료:김승남 의원실)

해 보상 수준 조정이 불가피한 데다 높은 보상 수준으로 일부 농가의 피해 예방 노력 소홀 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주요 과수 4종에 대한 최근 3년 동안 손해율은 111.8%(2017년)→211.4%(2018년)→162.3%(2019년) 등 매년 올랐다.

김 의원은 “같은 작물인 벼를 재배하는 농가 입장에서 같은 보험에 가입하는데 요금이 수 배씩 차이가 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보험료 격차를 유발하는 현행 보험료율 산정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작물 재해보험은 민간보험과 동일 선상에 놓고 계산기를 두드려선 안 된다”며 “재해 보상 수준을 다시 상향하고, 무사고 보험료 환급 보장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이 최근 주력하고 있는 ‘아열대작물’ 등으로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김 의원은 “전남은 따뜻한 기후여건으로 아열대작물 재배로 농가 소득을 올릴 가능성이 크지만, 석류 등 아열대작물은 보험 대상품목으로 선정되지 않아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에 ‘속수무직’이라며 ‘향후 신규도입 품목 선정 시 해당 품목을 포함하여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서창농협, 조합원 어르신 무료 검안



광주 서창농협은 최근 서구 금호동 본점에서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고령 조합원 150명을 대상으로 ‘농업인 행복버스’를 진행, 무료 검안과 장수 사진촬영 등을 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전남 고구마 250상자 공동구매

농관원 전남지원 19개 사무소·유관기관 참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직원들은 지난 8~9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고구마 농가로부터 625만원 상당 고구마를 공동 구매했다고 25일 밝혔다. 농관원 전남지원 19개 사무소를 포함한 전 직원과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유관기관이 이번 공동 구매에 참여했다. 구매 물량은 총 625만원 상당으로, 고구마 250상자이다.

황규광 전남지원장은 “이번 행사가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직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안전한 먹거리 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aT, 중국 수출상담 124만달러 성과

온라인 상담회...전남도 12개 업체 60개 특산물 선보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22일 전남도와 ‘대(對) 중국 우수농식품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열어 124만달러(14억원) 상당 상담성과를 거뒀고 25일 밝혔다.

이번 상담회는 지난 달 aT 상하이지사 와 각 지자체 파견 중국대표처, aT의 현지화사업자문기관이 힘을 합쳐 지자체 농특산품의 판로확보를 위해 발족한 ‘현지화지원사업협의회’의 후속사업이다. 이날 견조과일 스낵, 음료, 차류, 조미 김, 전복장 등 12개 업체 60여 개 전남

농특산물이 상하이와 화동지역 수입바이어(구매 담당자)들에 선보여졌다.

aT는 이날 말에도 경북도와 제주 관내 농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수출상담회도 연이어 진행할 계획이다.

신현곤 aT 식품수출이사는 “aT는 현지화지원사업을 통해 세계 각국의 비관세장벽 애로해소에 많은 노후를 가지고 있다”며 “각 지자체들과 다양한 협업 모델을 통해 지역 특산품의 실질적인 수출확대와 신규시장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aT, 학교급식 공급업체 298곳 식품위생 점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광주 전남지역본부의 지난 달 말 현재 학교급식 공급업체 298곳에 대한 식품위생 점검을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전수조사 대상은 올해 신규등록 업체와 2년 경과 업체이다. aT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학교급식 공급

사로 등록된 업체는 약 720곳이다. aT 측은 지난해 415개 업체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점검 사항은 학교급식 납품업체들에 대한 식품위생, 작업장 환경 및 시설 안전성 등이다. 점검에는 교육청, 보건소, 학교, 소비자감시원, 학부모 등이 참여한다.

/백희준 기자 bhj@



“농촌 일손 함께 도와요” 농협 전남지역본부와 농협 해남군지부 직원 30여 명은 최근 해남군 마산면 고구마 재배농가를 찾아 수확철 일손을 도왔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어촌계 5곳 중 1곳, 100만~500만원 가입비 받는다

어촌계 5년새 34 곳 늘어 2039개소...계원은 10% 줄어
전체 73% 가입기준 존재...2년~10년 거주때 가입 36.4%

전국 2000여 어촌계 가운데 5곳 중 1곳 쥘로는 100만~500만원 미만의 가입비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내용은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받아 공개한 ‘어촌계 가입기준 조사현황’ (2019년 5월)에 담겼다.

어촌계는 지난 2015년 2005개소에서 지

난해 2039개소로 30여 곳 늘었다. 하지만 어촌 고령화 등으로 인해 어촌계원은 14만 1039명에서 12만6461명으로 10.3%(-1만4578명) 감소했다.

어촌계 2039개소 가운데 가입 기준이 있는 곳은 73.8% 수준인 1504개소로 확인됐다. 조사에서는 4곳을 제외한 2035개소가 응답했다.

어촌계 가입비 기준을 보면 50만원 미만

이거나 아예 가입비가 없는 어촌계가 1235개소로 60.7%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100만~500만원 미만인 20.2%(411개소)로 많았고, 1000만원 초과~1억원 8.1%(166개소)가 뒤를 이었다.

500만~1000만원 미만 7.4%(150개소), 50만~100만원 미만 3.6%(73개소)도 있었다.

또 거주기간에 따라 가입 자격을 부여하는 어촌계도 있는데 1년 미만 거주하거나 곧바로 가입자격을 주는 어촌계는 43.4%(882개소) 정도였다.

1년 이상~2년 거주는 16.6%(338개소)

로 뒤를 이었고 ▲3년 초과~5년 18%(367개소) ▲2년 초과~3년 14.4%(292개소) ▲5년 초과~10년 3.6%(74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10년 넘게 거주해야 하는 어촌계도 8곳(0.4%)있었다. 의무 거주기간 2년 초과~10년 초과를 통틀어 집계하면 741개소(36.4%)에 달했다.

김영진 의원은 “지난 2018년 7월 수협법 개정을 통해 조합원이 아닌 어업인도 어촌계 가입이 가능토록 개방하는 등 어촌계 가입요건 완화를 추진했으나,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됐다”며 “수협이 대안으로 제시한 ‘준계원제도’를 운영하는 어촌계는 지난해 기준 684개소로 5년 동안 단 18곳 늘었다”고 지적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